“학생인권조례는 교육의 기본이다!”
‘경기도 학생인권조례’ 통과 촉구를 위한 서명(시민)

아주 추운 날, 얇은 교복에 코트도 입지 않고 버스를 기다리는 여학생을 보신 적이 있나요? ‘멋도 좋지만, 얼어 죽겠다.’고 생각하셨죠? 그 학생이 조금이라도 따뜻해보려고 코트나 점퍼를 입고 등교하면, 선생님에게 겉옷을 빼앗기게 됩니다.

밤늦은 시간, 삼삼오오 모여 어디론가 향하는 교복 입은 청소년들을 보신 적이 있나요? ‘요즘 같은 때 위험하게 왜 밤늦게 돌아 다니냐’고 생각하시나요? 그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‘강제 야자’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랍니다.

많은 학생들이 겨울에도 코트를 입지 못하고, 편히 쉬어야 할 밤 시간에 쉬지 못합니다. 바꿔보고 싶지만, 치열한 경쟁 속에서 대학 갈 때까지 참으라는 대답만 돌아올 뿐입니다.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**‘경기도학생인권조례’**를 제정하려고 합니다.

어떤 사람들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 학생들이 공부는 하지 않고 시위만 할 거라고 주장합니다. 물론 스스로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정당한 시위는 조례에 확실히 보장되어야 합니다.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좀 더 인간적인, 좀 더 인권적인 환경에서 자라고 공부하고 싶다는 학생들의 바람입니다. **학생들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더해주세요!**

(*본 서명은 ‘경기도 학생인권조례’가 도교육위로 상정될 4월 초순 경, 경기도교육위원회로 전달되어, 통과 촉구를 요구함을 알릴 예정입니다. 적어주신 정보는 조례통과 촉구, 학생인권 소식을 알리는 데 외에 사용되지 않습니다.)

이름	나이	지역	연락처	하고 싶은 말, 한마디!